

광주전남작가회의, 미안마 응원 릴레이 연대시 <2>

만 리 밖의 함성은 무등에 걸려

김희수

2021년 2월 말경 41년 전 계엄군의 총탄이 내 친구를 맞아갔던 그날처럼 경악하였다. 공연과 화염이 자욱하여 지옥 같은 거리. 젊은이들의 혈떡이는 숨소리가 귀를 찢는 듯. 군인들의 무차별 공격을 피해 기습에 물린 짐승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모습. 아스팔트에 쓰러져 질질 끌려간 학생은 그 후 어찌 되었을까 거리 한 복판에 꿰어 앉아 군인들을 향해 제발 발포를 멈추라고 애원하는 수녀의 회색 등이 슬퍼 보였다. 앉아봐 자세를 한 저격수의 총구가 나를 겨냥하는 것 같아 으스스 몸을 떨었다. 심장이 심하게 쿵쾅거렸다. 그 밤에 창 열고 무등을 보았다. 만 리 밖의 함성이 무등에 걸려 만장처럼 하얗게 펼쳐지던 것을. 1980년 광주 속가슴 깊이 응어리져 확질처럼 시름시름 오래 앓던 봄날을 또다시 보았다.

세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민을 지켜야 할 군경이 총부리 거꾸로 돌려 국민을 학살하다!
미안마여 미안마여 슬픈 미안마여

'혹여 싸우다 죽으면 제 장기를 기증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 유서를 감추고 거리에 나서는가

동아시아 북쪽 반도 땅 광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청껏 부르는
그대들의 아우성을 다시 듣나니
억울한 주검과 피투성이들을 보나니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분투하라 전투하라 외마디 비명을 보내나니
얼마나 끔찍한 기억이면 오금부터 저리는가
얼마나 징그러운 봄날이면 뺨속 징징 아리는가

꽃들은 일제히 떨어 흩날렸지
진압봉에 으깨어진 두개골에 선혈이 흘렀고
최후의 호린 시야 속에서 민중을 그렸지
대검에 찔린 자유를 울며 꺾이고
겉탈 구금 고문 능욕의 이수라 속에서도
참세상의 씨알들을 목숨으로 삼았지
야만은 또 다른 야만을 부르고
총칼은 총칼로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를 새겼지

아아, 미안마여 양곤이여
그대들의 투쟁은 백번 정당하고 정당하여
그날의 어머니들이 일어서고 빛고를 꽃냈들도 음우하고
그날의 뜨거운 피 그날의 눈물을 보내나니

세계인의 부릅뜬 눈빛들과 천지신명이
기필코 그대들을 굽어 살피실 것이다
그러하여 그대들은 마침내 이길 것이다
미안마 만세! 아웅산 만세!



▲전남대 국문과 및 동 교육대학원 졸업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역임 ▲시집 '신농부가' 등 다수

한국계 비올리스트 용재 오늘 '그레미' 수상

클래식 부문...3수만에 상 받아
"어두운 시기에 햇빛 들어온 것 같아"
첫 단독무대 펼친 BTS는 수상 실패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43)이 제63회 '그레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클래식 인스트루멘탈 솔로' 상을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방탄소년단(BTS)은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그레미 어워즈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그레미에서 첫 단독 무대를 펼치며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그레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15일(미국 현지 시간 14일) 열린 제63회 그레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사전 시상식)에서 리처드 용재 오닐을 이 부문 수상자로 발표했다.

'그레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지 세 번째 만에 처음 수상한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비올라에 있어 위대한 날이다.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영광을 얻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 작품은 리처드 용재 오닐이 데이비드 앨런 밀러의 지휘로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2019년까지 12년간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 음악감독을 맡으며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섰다. 지난해부터는 헝가리가 배출한 현악 사중주단 타카치 콰르텟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2004년 KBS TV '인간극장'을 통해 가족사가 소개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한국전쟁 고아로 미국에 입양된 그의 어머니 이복순(68·미국명 폴린 오닐) 씨가 어릴 적 앓았던 열병으로 지적장애를 지닌 상황에서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 비올리스트로서 최초로 줄리아드 음악원 대학원 과정에 입학했으며, 전도유망한 젊은 연주자에게 주는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았다.

그레미 어워즈 클래식 부문에서는 한국인이 수상한 적이 있다. 1993년 소프라노 조수미가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이 그해 클래식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상'에 선정됐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수상 직후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



그레미 어워즈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그레미에서 첫 단독 무대를 펼친 방탄소년단.



그레미 상 클래식 부문 상을 수상한 리처드 용재 오닐

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레미 어워즈 수상 소식을 어머니께도 전했어요. 어머니께서는 "너는 똑똑한 애구나"라고 칭찬하셨어요. 어머니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웃음)

그는 이번 그레미 수상에 대한 마음을 "벅차올랐다"는 단어로 표현했다. 그는 "굉장한 슬픔, 실망, 아픔, 그리고(코로나19로 인한 연주) 취소가 가득했다"며 "아주 어두운 시기에 햇빛이 갑자기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베스트 인스트루멘탈 솔로리스트 퍼포먼스'

스' 부문에, 2011년에 '베스트 체임버 뮤직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그레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대중가수 최초로 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레미 어워즈에서 수상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레미에서 첫 단독 무대를 펼치며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8관왕에 오르면서 그레미 어워즈 수상 불발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레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사전 시상식)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작은 레이디 가가-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가 선정됐다.

방탄소년단은 후보 선정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경험"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들 멤버들은 15일 공식 트위터 계정과 팬 플랫폼 '위버스'에 잇달아 글을 올려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민은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느라 고생하셨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다. 정국은 "매 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슈가는 "올해 더 열심히 달려오겠다"라며 멤버들과 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제이홉, 진은 "아미(팬명) 사랑한다"는 글을 남겼고, RM은 "퍼포먼스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작품 공모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021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이하 토요일상설공연)' 공연작품을 공모한다.

토요일상설공연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 서석당·너털마당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매월 첫째 주는 판소리·산조무대, 둘째 주는 국악창작무대, 셋째 주는 연희·무용 무대 등 공모 작품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주는 자체기획 작품으로 꾸밀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판소리·산조무대를 선보일 판소리 8인과 산조 8인 등 총16인 ▲국악창작무대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곡을 연주하는 8개 단체 ▲연희·무용무대는 전통연희 또는 무용작품을 구성한 8개 단체이다.

전통예술 전문지식과 공연 역량을 갖춘 예술인(단체)

이런 지원 가능하다. 단 종교기관 소속단체, 학교 학위 취득 연주 목적, 출연료 전체 30%가 아마추어 수강생으로 구성된 단체(개인)와 지난해 참여 단체(개인)는 불가하다.

지원사항은 ▲판소리·산조무대는 반주자·협조연주자 출연료 등 1인당 100만원 ▲국악창작무대와 연희·무용무대는 공연 기획·제작, 출연료 등 포함해 단체별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연장, 조명·음향, 인쇄 홍보물,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접수는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june524@gjcf.or.kr)로 신청 가능하다. 문의 062-670-850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 교육생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중이다.

교육생의 자격요건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을 가진 전문 의료인력이며, '해피아이맘 건강간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주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양성과정에 참여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가족재단 키움지원단 또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2-670-0572, 062-670-204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